

# 부여, 어디까지 가봤니?

2022.5

꽃민이네 부여탐방

## 부여, 백제의 옛 자취가 살아있는 도시

"백제는 어떤 나라였을까?"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 고구려, 삼국통일을 이룩한 신라에 비해 비교적 관심이 덜했던 백제.

부여에서 찾은 백제의 옛모습은 우리 가족이 상상한 그 이상이었다. 백제의 옛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백제문화단지를 비롯, 백제금동대향로, 정림사지 오층석탑 등 백제의 찬란한 문화의 한 순간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여행이었다.



부여에서 백제를 만나는  
가족여행코스

부여 역사탐방을 위해 우리 가족이 준비한 코스는 1박 2일.  
백제의 다양한 문화와 아름다운 보물들을 만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부여 역사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코스를 추천한다.

1DAY- 백제가 살아 숨쉬는 삶의 현장

2DAY- 백제의 아름다운 보물을 만나기

## 부여에서 백제를 만나는 가족여행코스

### 1DAY. 백제가 살아숨쉬는 삶의 현장



#### # 백제 문화단지

- 국내 최초로 삼국시대 백제왕궁을 재현한 곳.
-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건축양식과 백제시대 유적과 유물에 근거한 사실적 재현을 통하여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 # 백제역사문화관

백제 역사와 문화의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전시물들을 다양하게 둘러볼 수 있다.



#### TIP.

백제문화단지는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다. 사비로열차나 전기자전거를 타면 좀 더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다.

우리 가족은 사비로열차로 한 바퀴 둘러본 뒤 능사와 생활문화마을을 다시 꼼꼼히 둘러보았다.



## 부여에서 백제를 만나는 가족여행코스

### 2DAY 백제의 아름다운 보물들

#### # 백제의 아름다운 보물들

- 백제금동대향로(국보 287호, 국립부여박물관): 존재만으로 압도되는 아름다움에 감탄할 수 밖에 없다. 세련되고 정교한 제작기술만으로 백제인의 지혜에 감탄하게 된다.
- 정림사지 오층석탑(국보 9호): 부여 동남리에 위치한 정림사지 오층석탑은 우리나라 석탑 양식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라 한다.





## 부여에서 백제를 만나는 가족여행코스

### 2DAY 백제의 아름다운 보물들

#### # 백제의 아름다운 풍광

- 낙화암: 백마강 유람선을 타면 아름다운 백마강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고란사를 거쳐 낙화암을 올라가는 길은 계단이 많아서 힘들긴 했지만 그 풍경은 힘들음을 단번에 사라지게 해 준다. 백제의 쓸쓸한 마지막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 하지만 백제의 기품과 영광도 느껴진다.
- 중남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연못으로 과거 백제 사비성의 후원이었다. 낮에도 아름다웠지만, 해질 무렵과 야경이 일품이었다. 여름 7~8월에는 연꽃 축제가 열린다하니 그 기간에 맞춰와도 좋을 것 같다.



부여 역사여행,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다.

백제가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던 이유는  
금강 유역의 일대를 품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부여는 널찍하고 비옥한 평야를 품고 넓은 강을 끼고 있었다.  
그리고 직접 아름다운 문화재들과 기술력을 눈으로 보니 백제가 왜 일본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있었다.

부여는 떠들썩한 관광지나 유명한 도시는 아니지만, 백제의 문화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것 만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고 친구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은 답사였다.